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지영미 청장, 경남권역 방역대응 최일선 현장방문

- 경남권질병대응센터와 국립부산검역소를 방문하여 방역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격려
- 백일해 등 국내 호흡기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12.14.(목)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경남권질병대응센터*와 국립부산검역소를 방문하였다.

*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권역(부산, 울산, 경남) 내 질병 대응·관리를 위해 신설(’20.9월),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 근거 기반 신속 진단분석 및 지역특화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업무 수행

이번 방문은 국내 주요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대응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 최일선에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영미 청장이 방문한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최근 권역 내 유행하고 있는 백일해 등 국내 호흡기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아동병원과 교육시설을 현장점검하고 관계기관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영미 청장은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으로부터 방역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코로나19 유행 후 일상회복으로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면서 호흡기감염병 유행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였다.

또한 권역 내 질병대응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지역현장에 있는 질병대응센터가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다가가 국민의 건강한 일상에 동행자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지역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영미 청장은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방문 이후 국립부산검역소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연이어 방문하여 한-일 정기여객선 및 국제크루즈선 등을 통한 입국 승객 검역 대응상황을 점검하면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한 해외여행 국가별 감염병 정보 제공 및 감염병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대응 현황 등을 확인하고 검역관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지영미 청장은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 때 보여준 검역관들의 헌신을 기억한다”며,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검역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경남권질병대응센터와 국립부산검역소가 긴밀히 협조하여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국제 여객선 및 크루즈선 입국승객에 대한 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질병관리청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오재욱 (051-260-3710)
		담당자	사무관	김은현 (051-260-3711)
담당 부서	국립부산검역소 검역과	책임자	소 장	강차원 (051-602-0601)
		담당자	과 장	민철우 (051-602-0621)